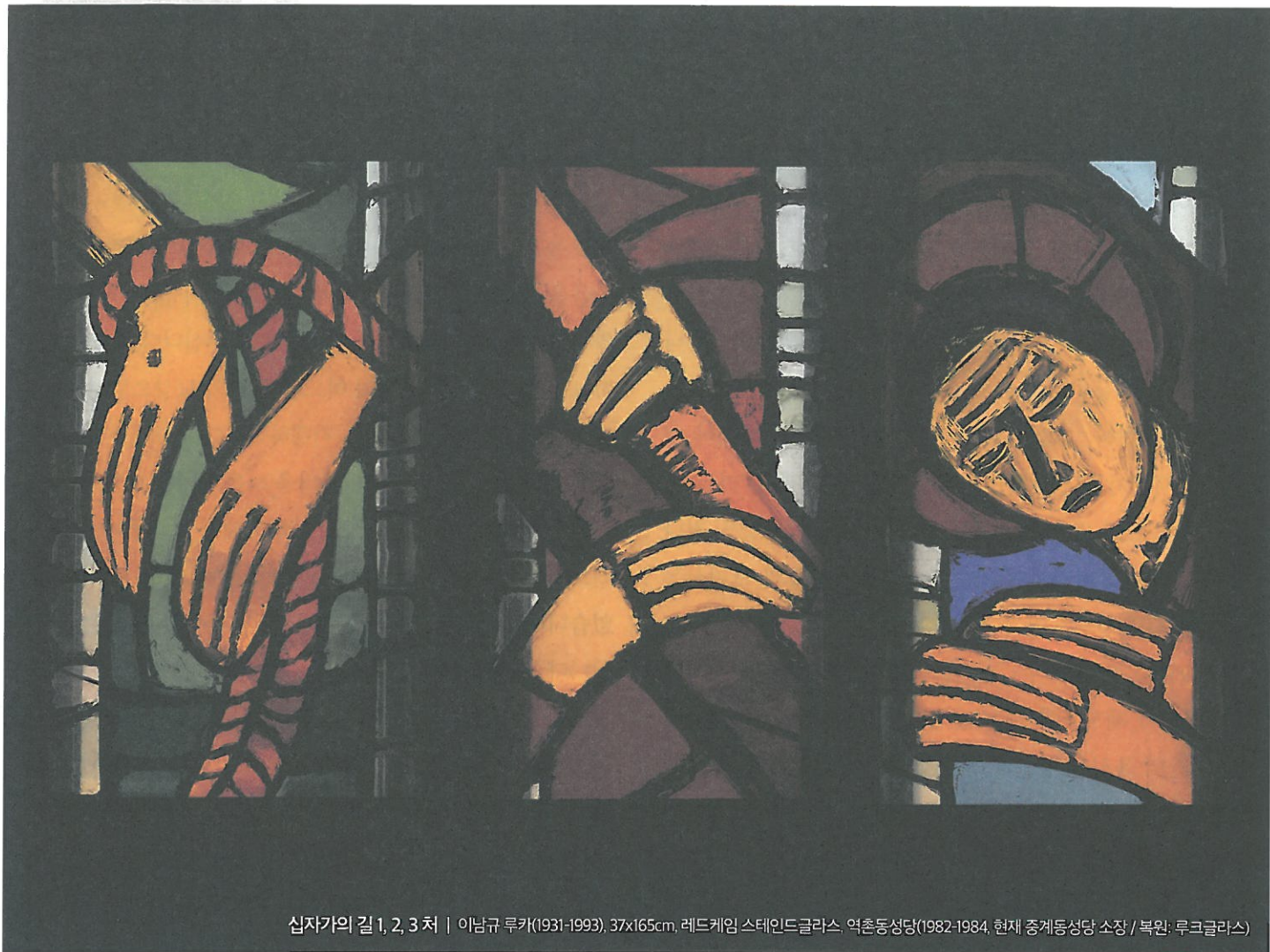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십자가의 길 1, 2, 3 처 | 이남규 루카(1931-1993), 37x165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역촌동성당(1982-1984, 현재 중계동성당 소장 / 복원: 루크글라스)

입당송 | 시편 27(26), 8, 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12, 1-4 7

화답송 | 시편 33(32), 4-5, 18-19, 20과 22(©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

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2티모 1, 8L-10

복음환호송 | 마태 1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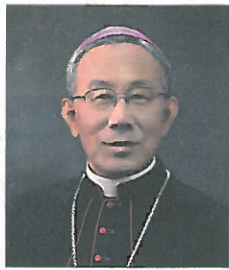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 17, 1-9

영성체송 | 마태 17, 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학교 보좌주교

|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제 고향 마을 뒷산의 이름은 '보리산'입니다. 작년에 제가 잘 아는 신자 가족이 제 도장을 새겨주고 싶는데 '호(號)'를 알려달라고 하여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보리산인(菩提山)'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제'가 되고 싶다는 거룩한 원의를 갖게 된 곳도 바로 이 산 위에서였습니다. 보리산을 등반하며 나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아!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사제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다 고향을 지나다가 보리산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는데, 이렇게 보리산은 제게 늘 신비로움을 안겨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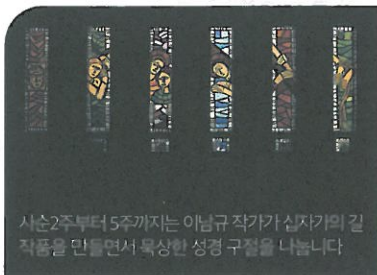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정신과 영혼이 머무는 집이기에 그의 얼굴은 속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변화심은 이분의 내적인 본성이 어떠하신지를 보여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人性)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神性)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신성은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2티모 1,10)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는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

아 있습니다.'(루카 20,38 참조) 또한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골로 2,9)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고 전율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히브 1,3) 이 하느님의 신성(神性)인 완전한 아름다움(美)은 예수님께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곧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겪으시는 수난을 포함합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성 베르나르도)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인성으로 겪으신 인간의 온갖 반항과 거부, 불신과 증오와 적개심, 그로 인한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하느님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짐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이 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서 오늘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그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당신의 이 신적 본성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마태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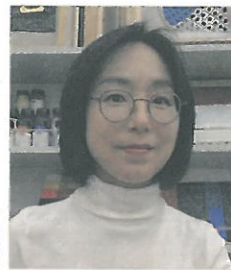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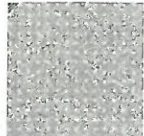


시온주보 2주부터 5주까지는 이남규 작가가 십자가의 길 작품을 만들면서 묵상한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 제1차 예수,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1코린 2,2)
- 제2차 예수, 십자가를 지시다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 제3차 예수, 첫 번째 넘어지시다 -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마르 14,37)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유난이 글러라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

나의 직업 속 하느님

저는 미술 작품을 보존 처리하는 미술품 보존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몸이 노화로 변하듯이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 작품도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변화를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더 오랫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존가의 역할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미술관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어두운 수장고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물감과 캔버스라는 물질을 통해 작가의 예술혼이 투영되어 탄생한 소중한 창작물일 텐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깊은 잠에 들듯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전쟁과 빈곤의 시절, 서양화라는 신기술을 습득해서 그림을 그렸던 젊은 작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사용한 재료나 제작 기법이 그리 뛰어나 보이지 않으며, 어설픈 구도를 띤 필치의 습작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보관 상태 역시 좋지 않았는지 다양한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조사 방법으로 작품을 관찰해보니,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 한 점을 그리기 위해 여러 번 밑그림을 수정했고, 당시 귀하던 캔버스를 재활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작품을 덧그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 그리던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전체를 지우거나 덮어버리고 다시 그렸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귀한 물감과 캔버스를 낭비하여 속상했을 작가의 참담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보존 처리가 끝나 작품을 다시 수장고로 돌려보내게 되자, 과연 이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날이 올까 의문이 드는 한편, 안정적인 상태로 잘 보관한다면 오

히려 사람보다도 훨씬 수명이 길기에 언젠가 때가 오면 관람객들도 볼 수 있게 되리라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작품이 태어나고, 손상되어 변화되고, 또 수리되는 과정은 마치 인간이 태어나 노쇠하여 하늘로 가는 인생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평생에 걸쳐 전세계 곳곳에서 전시되는 화려한 삶을 이어온 작품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전시되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미술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작품이든 보존가에게는 다 같은 작품이며 보존 처리를 할 때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손길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하느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분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당신의 아들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인쓰럽고 측은하여 관심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습작과 같은 100년 전 그림을 보고 느낀 것과 같이... 오늘도 저는 미래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작품이 잘 보존되도록 도와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 찬양을 받으리라" (시편 139)
교회에 맡겨진 계시의 변화가 인간의 마음에 더욱더 채워져야 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 <계시현장> 26화 -

한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전례



그림 | 승현철 안토니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자라는 씨앗 특수교육 센터
Growing Seed Special Education Center

오늘도 한 뼘,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밍글라바”(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라는 씨앗’학교의 아침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힘찬 인사 소리로 가득합니다. 미얀마 최북단에 위치한 저희 학교는 45명(청각장애 22명, 지적·지체장애 23명)의 아동들이 배움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장애 아동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2011년 당시, 아동 5~6명으로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인원이 늘어나면서 점차 학교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녀님들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으로 가족들과 지역사회 인식의 바뀐 덕분에, 2022년에는 45명의 장애 아동이 다니고 10명의 아동들이 가정방문 교육에 참여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5명의 장애 아동이 교실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10명의 학생이 가정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에서 장애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 학교 입학은 어렵고, 입학이 되더라도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번번이 무시당합니다. 그나마 있는 특수 학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지방의 장애 아동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는 씨앗’학교는 미얀마 000 지역의 장애 아동을 위한 유일한 학교입니다.

초기에는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에서 학교 운영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수녀회 재정만으



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몇몇 기부 단체의 도움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수녀회의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학교가 유지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 사태로 학교에 올 수 없었던 지난 2년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잇따른 정치·사회적 어려움으로 미얀마의 많은 가정이 경제적,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저희 역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든 시간을 잘 버티어내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2022년 5월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학교는 다시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재잘거림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팬데믹 여파와 정치·사회적 혼란이 남아 있지만 ‘자라는 씨앗’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어려운 형편에도 학비와 차량 주유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은 학교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라는 씨앗’학교는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배울 수 있도록 통합형 공동체 학교를 꿈꿉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라납니다. 미얀마의 장애 아동들이 ‘자라는 씨앗’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3월 4일~3월 3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자라는 씨앗 특수교육 센터’를 위해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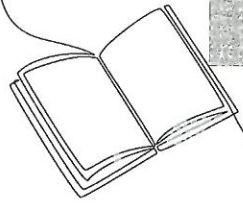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마지막 장에서 전해 줍니다. 루카 복음서와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머리말(사도 1,1-5) 이후 예수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전해 줍니다. 그러나 승천 이야기에 앞서 머리말(사도 1,1-5)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사도 1,5)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루카복음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루카 24,49)라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과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이 바로 성령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음적 삶이
더 중요합니다.
”

성령의 세례에 관한 예수님 말씀 이후, 사도들은 승천하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사도 1,6) 그런데 이 물음은 아직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구약에서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다윗 왕국이 재건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시편 14,7; 집회 48,10; 예레 33,7; 호세 6,11 참조)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도들의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지

배당하고 핍박받은 유대인들의 염원을 표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만의 구원과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복음선포 여정을 통해 드러냅니다. 복음 선포 여정의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이를 통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명을 미사 때, 사제가 “신앙의 신비여.”라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

다.”라는 응답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음적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이비 종교들은 재림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복음적 삶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사도 1,11)라며 꾸짖는 듯한 천사의 말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만을 쳐다보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저는 소싯적에 물리학을 전공하던 자연과학도였습니다. 제 과거를 듣고 옆에 일고여덟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신부님, 저는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물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를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리보다 더 보편적으로 어려움과 싫어함의 대상이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수학이라는 도구로 자연현상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수학을, 심지어 자연현상에 적용하고 분석해야 한다니 이렇게 난감할 데가 없지요.

하지만 어디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과목보다 수학을 좋아하고 나아가 수학으로 자연을 분석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흔치 않은 사람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칭하는 데카르트(R. Descartes, +1650)가 있고, 시계처럼 정확한 철학자로 유명한 칸트(I. Kant, +1804)도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x-y 좌표계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였습니다. 칸트는, 말만 들어도 아득하고 복잡할 것 같은 천체 물리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요. 오늘날 윤리 교과서나 철학 강의에서 만날 법한 이 사람들은 실상 뛰어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데, 이 말은 확실한 지식, 분명한 참됨(眞理)을 찾기 위한 그의 출발점입니다. 데카르트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나’는 모든 확실성의 출발점이고, 이 ‘생각하는 나’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얻는 지식 중 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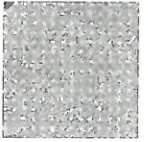
바로 수학 지식입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확실한 참됨(眞理)의 모범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칸트는 여기에 물리학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물리학의 방법론을 본뜬 다른 자연과학 분과들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science)이라고 선언합니다.

칸트 이후, 원래는 학문 일반을 가리키던 ‘science’는 점차 특정 학문, 곧 자연과학을 주로 지칭하는 말로 굳어집니다. 과거에는 철학이 학문 전체를 다루고 숙고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과학이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유일하게 참된 ‘science’라 일컫게 된 것이지요.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에 점차 어렵고 수준 높은 수학이 사용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 뉴턴(I. Newton, +1727)은 원래 스스로를 철학자로, 특별히 자연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자연철학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뉴턴 이래 물리학은 저 악명 높은 미적분과 다른 복잡한 수학으로 인해 더 이상 철학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편에 대한 동일한 관심으로 출발한 철학과 과학은 그렇게 서로 멀어졌습니다. 예전의 한 유행가 가사처럼 과학은 철학의 품을 떠나면서 그 ‘반쪽’을 가져가 버렸고, ‘반쪽’을 내준 철학은 점차 위축되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 칼럼 제목과 말미에 철학과 과학의 관계를 “일과 아분의 일”이라는 90년대 유행가 가사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이는 필자가 학부 시절 들었던 김영 교수의 과학철학 강의에서 빌려왔음을 밝혀 둡니다.



2023년 감독_이해영



영화 '유령'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보좌신부

사순 시기를 맞이한 신앙인들은 새로이 실천할 거리들을 살핍니다. 그러나 사순 시기는 무언가를 새롭게 실천하는 시기보다는 신앙인답지 못했던 지난 모습을 다지는 시기로 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듯하던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순 시기가 겨울의 끝자락에 시작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며, 겨울을 다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영화 <바람의 소리(2009)>로 이미 영화화된 소설 <풍성>을 각색한 영화 <유령>은 1933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영화는 극중 항일조직 '흑색단'이 조선총독부에 심어 놓은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을 받아 외딴 호텔에 갇히게 된 다섯 명의 용의자들이 의심을 뚫고 탈출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를 그립니다.

용의자 중 한 사람이자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인 준지(설경구 분)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특별히 남몰래 조선의 독립을 열망한 어머니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데 앞장선 아버지를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때를 준지가 회상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를 향해 '사라진 조선에 미련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아들의 질문에 어머니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라는 답을 들려줍니다. 이는 《논어(論語)》의 <자한(子罕)>편에 등장하는 말로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곤궁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깨끗한 지조'를 비유합니다. 준지의 어머니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일운동을 옹호한 길이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이를 수 없어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거는 어머니를 비롯한 항일운동가들의 걸기를, 준지는 자신에게 차별을 가하는 이들의 태도보다 더 견딜 수가 없

습니다. 한편 또 다른 용의자로서 통신과의 암호문 기록을 담당하며 흑색단의 유령으로 활동하는 차경(이하늬 분)은 작전 중 목숨을 잃은 동료 난영(이승 분)을 향한 부채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 부채감은 목숨을 건 항일운동을 펼치는 차경의 심지를 흔듭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난영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차경이지만, 자신이 난영의 뒤를 고스란히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차경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차경으로 하여금 스스로 겨우내 침엽수와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난영을 떠오르게 하는 그 인물로 하여금 차경은 그간 지닌 부채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됩니다. 극중 차경을 비롯한 흑색단원들의 목숨을 건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은 여전히 요원해 보이지만, 그 요원함을 차경과 동료들은 희망으로 바꾸어 보는 법을 터득합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겨울의 깊은 추위와 물아치는 눈보라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며, 우리네 실존을 수없이 뒤흔들려드는 세파 앞에서도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학대의 피해자들'

교회 구성원들에게 받은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

선교는 교회의 보편적 사명입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우석제(과테말라) 신부, 이준호(미국 알래스카) 신부, 정해성(일본) 신부, 이승규(프랑스) 신부를 해외 선교 사제로 임명하며,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하오니 참석하시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때, 곳: 3월 24일(금)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2)727-2424 해외선교봉사국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3년 3월 6일 홍병철 루카 신부(39세)
- 1929년 3월 12일 강도영 마르코 신부(66세)
- 1944년 3월 9일 이보환 요셉 신부(51세)
- 2013년 3월 12일 이계중 세례자요한 신부(91세)
- 2016년 3월 7일 김병일 요셉 신부(82세)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 5일(수) 오전 10시 차량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3월 6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 5천원-조기 마감 가능)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5일(수)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연,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3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3월7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제: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59차 미사 3월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분: 서울대교구 황주 본당, 사창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늘푸른 청년 주일학교 불학기 개강(명동대성당)

주제: 언박싱, 믿음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대상: 35세~45세 청년 / 회비: 3만원(현금 접수)
 때, 곳: 3월18일~6월10일 매주(토) 17시30분, 교구청 501호
 접수: 3월4일 · 3월11일 17시30분~18시30분, 교구청 501호 현장접수 / 문의: 카키오채널 '늘푸른청년주일학교' 02)3407-3921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일상 속에서의 신앙교육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3월8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 비대면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2월27일(월) 10시~3월6일(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3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3월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한국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 개강

주제: '교회사, 생애 · 환경을 말한다'
 때: 3월16일~5월25일 매주(목) 19시~20시(60분 / 10주간)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회비: 8만원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교회사동인회
 입금시 이름 기재 / 입금 후 문의처로 전화연락 요망
 문의: 02)756-1691(602) 한국교회사연구소, 010-3348-1901 이충자, 010-6764-7004 천강우

갤러리1898 전시 안내 및 미술재료학 특강/문의:02)727-2336, 7

1) 갤러리1898 전시 안내
 홍수원 개인전: 1전시실
 이미영 개인전: 2전시실
 윤주연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8일(수)~16일(목)
 2) 갤러리1898 미술재료학 특강(무료 특강)
 때, 곳: 3월18일(토) 16시~17시30분, 갤러리1898
 강사: 이현영 박사(전문가미술재료제조기업 신한화공)
 접수: 50명(온라인 신청) / 굿뉴스 갤러리1898 홈페이지 참조

제48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3월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3월11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기 총회 및 월례미사

때: 3월6일(월) 오전 10시~12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슬픔 속 희망찾기' 3월 유가족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3월18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경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함몰자살예방센터

순교자현양위원회

1) 허투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때: 3월18일(토), 3월19일(일), 3월28일(화)
 곳: 청양 다락골, 요골, 정산성지
 신청: 3월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공)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안내
 때: 매일 첫째(화) 3월7일, 4월4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인문단체 알림

모임

군중후원회 사순 피정

때: 3월6일(월) 오전 9시30분 / 문의: 02)776-0457
 곳: 국군중앙주교좌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건물 뒤편 군중교구청 내)

새남터성당 성지 사순 피정

주제: 죽음없는 부활은 없다
 때: 3월6일(월) 10시~16시 / 회비: 1만원
 문의(접수): 070-8672-0327 성지안내소

3월 '섬'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원
 때: 3월10일 20시~12일 10시, 선교여성센터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 sspkorea.org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3월12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3월17일(금)~20일(월)·4월14일(금)~17일(월)·5월5일(금)~8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서울대학교 젊은이 성령세미나

내용: 새 생활을 위한 성령 피정 / 회비: 6만원
 때: 3월18일~19일,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카톨릭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DM: @ruah.fiat
 문의: 010-2140-5149 청년성령쇄신봉사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인간적, 영적 성숙을 돕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동행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문의: 010-6289-5013 조 미카엘라
 때: 매월 둘째주(토) 14시 / 곳: 도미니코 수도원 (주최,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돌아보며 깨닫기

문의: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돌깨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성지순례와 왜관수도원 전례·탐방

출발: 서울 명동(대형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왜관 부산 8곳 마산 6곳	3월23일~26일, 5월5일~8일
대구 17곳	4월15일~17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하오	매주(화) 21시30분~4시 / 2월21일~4월4일
성령기도회	매주(화) 사순시기 철야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치유 대피정	3월11일(토) 12시30분~17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3월18일~20일, 4월3일~5일
성지순례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5월19일~20일, 6월23일~24일

제주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4월25일~27일·5월2일~4일·5월26일~28일·6월4일~6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때: 4월6일(목) 16시30분~9일(일) 13시30분
 곳: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30만원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3월13일~15일·3월18일~20일·3월24일~26일·3월28일~30일·4월1일~3일·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교육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곳: 가톨릭회관 5층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3월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노들담실천교리 월요교육

대상: 첫영성체, 예비자, 교리교육담당자
 때: 3월27일·4월17일·5월15일·6월19일 13시~16시30분, 노들담교육관(종로 복촌)
 문의: 010-8829-6292(www.ndrpp.or.kr)

33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 모집

대상: 가르멜 기도를 배우고 살고 싶은 교우
 때: 3월 2회(2년 과정) 첫째주·셋째주 화요일·목요일·오전대면반(010-4495-7764), 저녁Zoom반(010-7924-7334) / 주최: 전교가르멜수녀회 영성의 집(서울)

한국의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후원회 미사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3월8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ICPE 2차 로고스 아카데미(탈출기) / 문의: 010-5646-6594

- 1) 아기 엄마들을 위한 로고스 아카데미(탈출기)
 때: 3월14일(화) 10시30분~6월20일 매주 비대면 / 회비: 월 1만원
- 2) 직장 엄마들을 위한 로고스 아카데미(탈출기)
 때: 3월16일(목) 20시~6월22일 매주 / 대면
 곳: ICPE 선교회(합정동) / 회비: 월 1만원

바로로탈 해화나무프로그램

해화나무와 함께 하는 '클래식포유'
 진행: 김수연(바이올리니스트)
 때: 3월~6월 매월 셋째주(토) 16시
 곳: 바로로탈 해화나무 지하공연장
 회비: 1만원(문자·현장 접수 가능)
 문의(접수): 010-9759-0882 (문자)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 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학업(검정고시·수능), 사진, 기타, 보컬, 토익, 피아노, 제과제빵, 컴활 등 /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및 수능 학습지도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https://www.iju.or.kr)

듀오 메타노이아의 화요일음악강좌

문의: 02)832-2654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행복한 노래교실' 가곡, 성가, 합창 등
 1) 개인 레슨을 통한 보컬 트레이닝
 때: 매주(화) 10시30분, 17시30분
 2) 함께 노래부르기
 강사: 송봉섭(성악가), 김정식(가수)
 때: 매주(화) 19시 / 회비: 월 4만원(4회 기준)

성경 강학회 '복음과 공동성' 강학회

주제: 마르코 복음과 공동성 / 강: 이기우 신부
 때: 3월8일~6월21일(16주), 흑석동성당 교육관 301호 / 회비 없음, 교재비 있음
 접수: 수강 원하시는 시간에 바로 출석하면 됨
 문의: 02)816-2961 흑석동성당

오전반	매주(수) 11시	오후반	매주(수) 20시
-----	-----------	-----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콘 교실

강사: 오승민 수사(프란치스코회), 김정미
 때: 3월21일(화)~24일(금) 개강(12회 강좌)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인원: 각 반별 0명
 회비: 38만원(이콘판, 개인봇 별도)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화)	오후반 14시~17시	(금)	오전반 10시~13시
(수)	오전반 10시~13시, 저녁반 18시30분~21시30분		
(목)	오전반 10시~13시, 오후반 14시~17시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 강좌

곳: 성바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미사 있음, 회비 없음
 (화)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마르코복음(예수님 수의와 함께)
 (목)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예수회 불학기 강좌(예수회센터)

개강: 3월(10주~12주 과정) / 현장·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이근상 신부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사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	임숙희 박사
영신수련 정기강좌	이근상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여호 2열왕, 위대하고 새로운 하느님	주원준 박사
꿈을 통한 영적 치유	홍기영 교수

모집

새남타성당 교동미사 성가대 단원 모집
 순수 봉사 / 대상: 성가를 봉헌할 남녀 교우
 연습: 매주(일) 11시 교동미사 전후 1시간씩(10시~13시) / 문의: 02)716-1791(내선 9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 봉사자 모집
 봉사내용: 도시락 배달(도보) 또는 차량 운전 봉사
 봉사시간: 10시~12시(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
 봉사장소: 서울 중구 관할지역 / 문의: 02)2231-1876~9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창단단원 모집
 대상: 55세 이상 신자 누구나
 때, 곳: 매주(화) 11시, 서울 서강 모니카연주홀
 지휘: 이상희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주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모니카교회음악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해외선교지 봉사단 모집
 대상: 백화작업 가능 단체 및 개인
 때: 11월~12월 중(2주 이내, 숙식 제공)
 곳: 방글라데시 디나즈폴 나자렛초등학교
 문의: 010-6772-1773 / 수녀회 홈페이지 참조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3월8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클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3월11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역삼동성당 영어미사
 때, 곳: 매주(일) 오후 4시, 경환당
 Time: Every Sunday at 4pm
 Venue: Kyunghwandang of Yeoksam-dong Cathedral(B1) / 문의: 010-7476-6325 신라헬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성 요셉 대축일 특별미사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미사'
 주제: 손희송 총대리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
 때: 3월19일(일) 오후 3시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3 콘솔레이션을 / 문의: 02)3147-2402

안내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피정
 수도자, 청소년, 예비자, 성인 피정
 침묵 대월 기도 피정: 4월6일~9일·5월12일~14일
 문의(접수): 032)465-0835(www.brotherhood.or.kr)

명동성당1898광장 내 병의원·약국 임차인 모집
 대상: 병의원·약국으로 직접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 / 3월17일까지(추후 심사 예정) 이메일(c-center@catholic.or.kr) 접수
 서류: 입점신청서(전화 및 이메일로 서류양식 신청)
 문의: 02)727-2306 가톨릭회관 관리실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명상으로 하는 마음 치유하기(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통 명상): 3월15일~5월31일 매주(수) 오전 10시~오후 1시(이론과 실습 병행) / 강사: 박연규 교수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고사 또는 돌연사로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4월13일~6월1일 매주(목) 14시~17시(8주)
 곳: 용산성당(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3월26일(일)까지 접수 / 010-8891-4572 용산성당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에서 출간한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무료배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문자 가능)
 ACN 한국지부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골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및 자원봉사자(의사) 모집
 내용: 자원봉사자 의사(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신경정신과), 직원 간호사 0명·간호조무사 0명 모집(토) 진료 / 문의: 02)940-1503(hfh1990@daum.net)

과달루페외방선교회 사무원 모집
 분야: 일반사무행정(계약직 1명) / 문의: 010-5182-3325
 근무: 주5일 오전 9시~오후 3시, 합정동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3월15일까지 이메일(ramzugy@gmail.com) 접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 모집 / 문의: 02)568-3656
 분야: 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신자
 업무: 성당청소 외(주 25시간, 4월 근무 예정)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 및 이메일(kc7hoon@naver.com) 접수

문정2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인원: 1명(계약직) / 문의: 02)408-0179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우편(우 0583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7길 34 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grgkim@seoul.catholic.kr) 접수

역삼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 / 문의: 02)553-080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3월11일(토) 까지 방문·우편(우 0622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85길 23-11) 및 이메일(yscatholic@naver.com) 접수

수궁동성당 관리인(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시설물 관리, 영선 가능한 분 / 문의: 02)2617-8183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타교구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3월15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257,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275) 및 이메일(dltlahs@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3월12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논현2동성당 사무직원 모집
 분야: 사무직원(1명) /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한 분(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3월10일(금)까지 이메일(y sfran@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6056,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17 논현2동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516-5066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3월12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3월11일(토) 14시~12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3월18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성심수녀회	3월25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9304-0295 채 세실리아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4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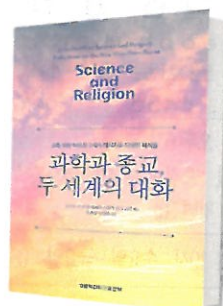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을 찾는 아이들

프란체스코 리에라 글
실비아 오리아나 콜롬보 그림
바오로딸 | 48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이 그림동화는 아이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철학적 질문 일곱 가지 '사랑, 행복, 죽음, 상처, 기도, 경청, 용서'에 대해 예화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느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과학과 종교, 두 세계의 대화

로버트 존 러셀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20쪽 | 1만9천원
문의: 02)740-971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과학과 종교 간 관계에 대한 기념비적인 메시지와 메시지에 대한 여러 분야 학자들의 다양한 성찰을 함께 모았다. 가톨릭교회의 정통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과학 세계의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신간

루카 복음 말씀여행

한국통합사목센터 지음
기본소식 | 180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 이어 소공체를 위한 말씀 나눔 '루카 복음 말씀여행'이 출간되었다.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동시에, 소공동체 모임에 더 큰 활력을 주고 신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박재찬 지음
분도출판사 | 288쪽 | 2만원
문의: 02)2266-3605

토마스 머튼을 연구한 저자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자신이 소화하고 묵상한 머튼의 영성을 담았다. 머튼은 고독과 침묵, 기도와 관상을 통해 자신 안에 이미 살아 계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

가톨릭 콘텐츠 전문 OTT cpbc+

cpbc TV, 라디오, 신문을 잇는 또 하나의 가톨릭 플랫폼, 'cpbc플러스'를 지금 스토어에서 검색해 다운로드해 보세요. 'cpbc플러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cpbc가 제작한 수십만 개의 영상, 오디오,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pbc플러스'는?



콘텐츠 추천

전례별, 관심사별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콘텐츠를 맞춤 추천해 드립니다.



가톨릭 전용 OTT

국내 유일의 가톨릭 전용 OTT로 cpbc TV, 라디오, 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편리한 검색과 플레이어

검색어 하나로 비디오, 오디오, 기사까지 통합해 찾아볼 수 있고 편리한 플레이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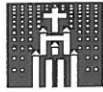
35년간 cpbc가 축적한 기획 기사를 주요 키워드별로 볼 수 있는 가톨릭 신앙의 보물창고 같은 메뉴입니다.



cpbc플러스 다운로드



제227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사순특강

일시 : 3월 10일(금) 오후 8시
 강사 :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님
 주제 :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청년 사순특강

일시 : 3월 5일(주일) 오후 7시
 강사 : 박우준 사도요한 신부님
 주제 : “사순, 뭘 해야 잘 보낸 걸까요?”
 - 사순과 성삼일, 전례의 의미에 대해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4월 7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 4월 2일(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 3월 5일(주일)은 사순특강으로 미진행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3월 23일(목) 오후 8시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예비신자는 3월 26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주일반	3월 5일(주일) 오전 9시 ~	교육관
수요반	3월 8일(수) 오후 8시 ~	304호

◎ 8구역 미사 봉헌

일시 : 3월 7일(화) 오후 7시
 장소 : 전창욱 로사리아 자매님 댁

◎ 1구역 미사 봉헌

일시 : 3월 9일(목) 오후 7시
 장소 : 박무송 파트리치오 형제님 댁

◎ 연령회 미사

일시 : 3월 7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문화학교 개강 및 학생모집(주일학교)

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쿠렐레, 영어
 개강 : 4월 1일(토) / 매주 토요일 수업
 수강신청 : 3월 15일(수) 오전 10시 ~ 24일(금) 접수
 접수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회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그룹원 모집

2023년 봄학기 성경 소그룹 나눔에 참여하실 청년을 모집합니다.
 일시 : 3월 셋째주까지
 과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과정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2. 2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8	603 (28.9%)	547 (26.2%)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2월 20일~26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박옥연 일백만원
익명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이정금 일십만원	5구역 일십만원
홍동수 일십만원	정영자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1주일)

교 무 금 10,882,000원
 주일헌금 5,295,700원

입당	72	봉헌	216, 210	성체	160, 502	파견	280
----	----	----	----------	----	----------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